

# 김윤철 합천군수 공약이행 발빠른 행보 '눈길'

김윤철 합천군수가 '희망찬 미래의 합천, 군민과 함께'라는 군정 슬로건과 함께 합천 발전을 내디딘 지 5개월이 지났다.

민선 8기 김 군수는 지방소멸위기를 타개하고,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희망찬 미래의 합천, 군민과 함께'라는 군정 슬로건을 내걸었다. 분야별로 ▲군민안전 소령령 ▲혁신적인 지역발전 ▲명품휴양 관광지 ▲동행하는 주민복지의 4대 군정 방향을 통해 합천의 새역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합천역세권 신도시 개발, 1억 소득 농업인 300명 육성,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조성 등 6대 분야 86개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확정했다.

김윤철 군수는 2023년 개도년의 해를 맞아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발빠른 행보로 미래 합천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가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청년신도시 행복주택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합천호 수력양생버스 도입 업무협약 모습. 육지와 물 위를 달리는 합천호 수력양생버스는 내년 말 합천호에 뜰 예정이다.

### ◆당초예산 7000억원 시대 개막

김윤철 군수는 중앙부처, 경남도 등을 수차례 방문하며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 지방소멸대응기금 140억원, 재해예방사업 516억원, 하수도분야 27억원 등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전년도 대비 769억원이 증가한 2023년도 당초예산을 7139억원으로 편성하여 합천군 최초 당초예산 7000억원 시대를 활짝 열게 됐다.

2023년 예산안은 앞서 언급한 공약사업과 군정운영 목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2023년에는 희망찬 합천 건설에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김윤철 군수가 취임초부터 강조하던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윤력이 드러났다.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 부각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을 지난 11월 경남개발공사와 행복주택 건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을 구첵화 했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은 11층 규모 청년 2채, 신혼부부 10채 등 총 30채를 짓는다. 사업 예정지는 도시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합천읍 합천리 1539번지 한국전력 합천지사 인근 사유지다.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원과 군비 25억원 등 총 사업비는 75억원으로 추진된다. 행복주택 건립 타미전과 분양 등은 합천군, 시공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진행되고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힐링1번지 휴양관광도시 합천 육성

김윤철 군수는 관광 분야에도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합천호 인근 관광 자원을 연쇄해 합천호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지난 12월 1일 김윤철 합천군수가 합천현악박물관 관계자와 함께 '합천은석총돌구 특별전'을 둘러보고 있다.

## 2023년 당초예산 7000억원 시대 개막·희망찬 합천 건설 총력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으로 '지방소멸타개' 첫 걸음 시작 합천역세권 신도시 개발 등 6대 분야 86개 사업 공약사업 추진

있다. 합천호를 한 배두는 생태 둘레길을 조성하고 수상 레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뱃놀이 피는 4월에 5월에 뱃놀이를 대비해 합천호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합천호 전역에 둘레길(91km)이 조성, 전국 호반 트레킹 대회와 산악 자전거 대회도 열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콘텐트인 합천호 수력양생버스가 내년부터 합천호를 달린다. 경남에서도 최초로 운행되는 수력양생버스는 2023년 말 시범운행을 목표로 지난 11월에 합천군-한국수자원공사(주)지엠이그림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다.

합천의 대표 관광지이지만 머물고 가는, 장시간 체류하는 관광시설이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했던 영상테마파크 7층 200실 규모의 '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건립에 착수했다. 400여명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개편되는 합창-울산간 고속도로 합천10와 연계해 관광객 유치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될 전망이다.

또한, 한반도의 최초이자 유일한 관광지인 합천은석총돌구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지난 12월 1일부터 합천현악박물관에서 개최되는 '합천은석총돌구 특별전'은 운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경 200M 은석총돌체의 모형을 전시하고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해서 만든 은석총돌구 지도를

분야 3D로 보고 느낄 수 있게 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합천은석총돌구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계획하고 향후 탐방로 조성, 국립 지질과학관 건립, 합천은석총돌구 상설을 건립, 지오사이트 개발 및 조성, 합천은석총돌구 세계유산으로 개최, 아열장 및 휴양시설 조성 등을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 ◆젊고 스마트한 농업도시 합천 육성

합천군은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의 50%에 육박하는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자체이다. 이러한 군의 기반인 농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1억 소득 농업인 300명 육성을 목표로 농·축·임산물 6차 산업 산(新)소득원 개발을 추진하고, 춘관산업 육성사업 확대, 농·축·임업의 맞춤형 스마트팜 특화사업 육성, 농업기업 유치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확대를 도모한다. 또한, 스마트한 침수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과 농작을 재해보험 지원 확대, 농산물 가격인정기금 확대 운영,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영농기반을 조성한다.

이외에 지속가능양병 사육기구 증가에 따라 양병산업 지원 확대 및 브랜드 육성 사업을 전개하며, 합천 초임부 경관 개

선을 위해 합천축력 전자 경매시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운영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스마트팜과 연계한 귀농·귀촌 단지 조성, 합천농업창업단지 운영을 통해 귀농, 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합천 미래농업대학을 통해 우수인력 육성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 ◆남부내륙 교통중심도시 합천

김 군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키워드로 '교통 인프라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합천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교통 인프라 조성에 따른 지역 발전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김 군수가 취임하고 남부내륙철도 합천역 확장 등 여러 호재를 맞았다. 이에, KTX 역사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합천역세권개발 용역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상업·문화가 아우러진 복합개발 신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신성장 동력으로 고속도로 IC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함양-합천-울산 간 고속도로 IC가 개통되는 대령면에는 황안산, 영상테마파크, 합천호 등의 관광 인프라를 연계한 관광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령면에는 물류단지로 개발해 남부내륙 물류 허브로 활용하는 것을 하고 있다.

합천의 미래에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진 민선 8기 김윤철 군수가 합천군 소멸위기 타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양한 정책과 합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으며, 지방소멸타개에서 더 나아가 '누구나 살고 싶은, 누구나 살아가고 싶은, 누구나 꿈꾸는 민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합천'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서지현전문



지난 11월 30일 새합 미래농업대학 수료식. 합천군은 새합미래농업대학을 통해 우수인력 육성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가 KTX 역사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354 X 467 mm